

# 반디앤루니스 종로타워점 문열다



## 지하의 가장 쾌적한 공간, 문화와 만남이 시작되는 열린 서점 표방

※ 반디앤루니스 종로타워점 개점식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연결되는 밀레니엄타워 지하 2층, '밀레니엄 플라자'라고 불리던 패션몰 자리에는 한동안 "안녕하세요? 반디앤루니스 종로타워점이 인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씌어진 휘장이 둘러쳐져 있었다. 지나가는 시민들로 하여금 기대와 의문을 주었지만 언론매체와 버스·지하철 광고는 '범상치 않은' 서점이 생길 것이라는 암시를 전했다. 그만큼 종로에 들어서는 반디앤루니스에 대한 기대가 컸던 이유다.

지난 달 22일, 반디앤루니스가 휘장을 걷고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종로 르네상스 광장 점등식 및 반디앤루니스 종로타워점 개점식'을 가진 것. 오후 4시부터 김범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시작된 개점식은 구경하는 시민

들과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종로 르네상스 광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행사가 치러진 종로 르네상스 광장은 서점 앞 560평 크기 공간의 새로운 명칭이다. 종로구청과 반디앤루니스가 함께 꾸민 이곳에는 책을 연상케 하는 의자를 두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18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역대 베스트셀러가 전시돼 있다. 한 권 한 권 유리장 안에 진열된 책들은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많이 많아서 그 자체가 한국문학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보물'이다. 이는 출판사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서를 입수한 것으로 현재는 공간상의 이유로 연도별로 분류된 234권만이 전시돼 있다. 마련된 빈 자리에는 기증받거나 꾸준히 수집된 도서가 비치될 계획이다.

이날 개점식에는 김천식 서울문고 대표를 비롯해, 김충용 종로구청장, 박맹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사회자의 카운트다운에 따라 광과래와 함께 베스트셀러 전시서가 쪽부터 서점 입구에까지 차례로 점등이 됐다. 특히 하늘 무늬로 도안돼 있어 자연적이면서도 은은한 분위기를 내는 르네상스 광장의 중앙 천장 조명이 연이어 켜지자 구경하던 시민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이날 기념사를 통해 김충용 종로구청장은 "종로 르네상스 광장이 책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지식과 정보제공 장소로서의 의미를 강조했고 김천식 서울문고 대표도 "고서가에는 근·현대사의 일부를 상징하는 찾기 힘든 교양도서를 비치해 놓은 것"이라며 그 의의와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후 참

석자 전원은 테이프커팅식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김종화 서울문고 이사의 인솔에 따라 서점 내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 여유로운 독서 장소 제공,  
다양한 문화행사 지속

반디앤루니스는 여유로운 책 고르기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환영받는다. 모든 독자들이 공통으로 원하는 바이기도 한데 이는 서가 사이와 주변에 이동·고정식 의자를 배치해 '편안한 책읽기'를 도모한 탓이다. 개점 첫 날이라 사람이 뜸할 듯해도 이곳저곳에 배치된 소파에 편히 앉아 책을 읽는 풍경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유아휴게방과 어린이소파, 요람, 유아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의 호응이 좋았다. 딸과 함께 서점을 찾은 정재은(36) 씨는 "아이와 책을 읽을 공간이 부족했거나 있어도 좁아서 불편했는데 이런 공간이 마련된 반디앤루니스에 자주 찾아와야겠다"며 만족해했다.

실면적 1,500평, 보유 장서량 30만 권, 인근 두 서점,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에 비하면 확연히 넓은 면적도 아니고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반디앤루니스는 '고객들이 찾는 책은 꼭 있다'는 각오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연중 내내 책과 문화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는 종로 르네상스 광장에 기대하는 바도 크다. 문화 이벤트의 첫 번째 행사로 타로카드 운세 상담이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라이브 재즈 연주회가 23일 오후 5시에 열렸고, 베스트셀러 저자 사인회로 《미실》의 저자 김별아 씨가 30일 오후 3시부터 사인회를 열었다. 총 100점이 전시되는 KBL농구단 사진전은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계속된다. 이처럼 값비싼 문화에 길들여지지 못하고 복잡한 서점에 지친 독자들을 위한 행사는 열린 공간, 종로 르네상스 광장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한민**

취재\_홍이현기자 | 사진\_박신우기자

### 청소년 과학기술도서 독후감대회 개최

교보문고, 한국공학한림원, (주)생각의나무가 주관하고 산업자원부의 후원 아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기술도서 독후감대회가 지난 4월 11일부터 진행 중이다.

'2005 세계 물리의 해'와 아인슈타인 탄생 50주년을 기념하고, '과학의 달' 4월을 맞아 열리는 이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북돋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지정된 책을 읽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독후감을 접수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이 가운데 한국공학한림원 학계 회원들의 심사를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상 1명,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상 1명, 우수상 10명, 기작 50명, 입선 100명을 선발한다. 수상 학생에게는 상장과 장학금, 부상을 수여한다.

접수기간 4월 11일 ~ 5월 20일(당일 도착분 유효)

대상도서 '공학과의 새로운 만남 시리즈' '젊은 세대를 위한 단 한 권의 교양과학 시리즈'(전 20권) 중 택일  
(자세한 목록은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한국공학한림원www.naek.or.kr 및  
(주)생각의나무www.itreebook.com 참조)

분량 200자 원고지 10매 이상

응모방법 우편, 서울 마포구 연남동 566-11  
독후감대회 행사담당자 앞 (121-869)  
이메일, daoyan@itreebook.com

발표 및 시상 5월 26일 생각의나무 홈페이지에 공고  
한국공학한림원 심사 및 회장단 시상

문의전화 02-3141-1616(내선 306)



· 지난 22일 반디앤루니스 개점식에서 참석자 전원이 테이프 커팅을 준비하고 있다.



· 서점 입구 전경. 지하철 종각역과 맞닿아 있다.